

# 역시 전국 최강...순천여고 소프트테니스 우승

동신고 남고부 준우승  
광주 사격 고등부 종합 1위  
신기록·다관왕도 쏟아져  
전남 복싱서 금 2개 추가



순천여고가 전국체전 단체전 정상에 올라 소프트테니스 전국 최강의 면모를 과시했다. 광주 동신고는 단체전 준우승을 일궈냈다.

순천여고는 13일 경북 문경국체소프트테니스장에서 열린 제102회 전국체육대회 소프트테니스 여고부 단체전 결승에서 무학여고(서울)를 3-1로 따돌리고 우승했다.

순천여고는 지난 2019년 100회 전국체전과 이번 대회까지 두번째 단체전 정상에 올랐다.

순천여고는 지난 4월 제57회 한국중고등학교 소프트테니스연맹회장기 전국소프트테니스대회 단체전에서도 우승을 차지한 바 있다.

전남은 복싱의 선전으로 금메달 2개를 보냈다. 임형욱은 라이트 헤비급에서 금메달, 박성현(이상 전남기술과학고)은 헤비급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전남은 이날 현재 19개 금메달을 수확했다.



순천여고 소프트테니스 선수들.

광주 선수단의 동신고는 소프트테니스에서 값진 은메달을 따냈다.

동신고는 인천고와 결승에서 2-3으로 아쉽게 패해 은메달에 그쳤다. 동신고는 1회전부터 파죽지세로 결승에 진출했으나 결승전 복싱에서 패한 탓에 고배를 마셨다.

광주사격은 이번 체전에서 두각을 드러내고 있

다. 금메달 3개, 은메달 2개 등 총 5개의 메달과 896점(비공식 점수)을 획득, 사격 종목 종합 1위를 달성했다.

공기소총 개인전에 출전한 최대한(광주체고 2)은 249.3점으로 대회 신기록을 갈아치우며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지난 제99회(2018) 체전에서 경



광주 동신고 소프트테니스 선수들.

남(김해분성고 강준기)이 세운 249.1점의 종전기록을 0.2점 앞당겼다.

공기소총 단체전에 출전한 최대한, 김정현, 오준서, 황의혁도 신기록을 수립했다. 이들은 지난 제97회(2016) 대전(대전체고)이 세운 1867.2점을 9.2점 앞당긴 1876.4점을 쏘며 주니어신기록을 경신했다. 최대한은 개인, 단체전에서 금메달을 획득

해 대회 2관왕에 올랐다. 복싱 김혁(광주체고 3)도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라이트웰터급에 출전한 김혁은 서울(윤여욱)에 2-3으로 패했다.

광주선수단은 이날까지 금메달 24개, 은메달 24개, 동메달 24개 등 총 72개의 메달을 획득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 전남, 전국장애인체전 사전경기 출발 국 김광현·손영숙 파라카누 남녀 동반우승

전남 장애인선수들이 제41회 전국장애인체전 파라카누(Para Canoe) 부문 남녀 동반 우승을 차지했다.

13일 전남도장애인체육회에 따르면 김광현, 손영숙은 이날 경북 경북 안동 낙동강 카누경기장에서 열린 파라카누 사전 경기에서 금메달을 따냈다.

김광현은 남자 200m 스피린트 KL1에서 1분 5초 44로 금메달을 차지했다. 손영숙은 여자 200m 스피린트 KL2에서 1분 58초 31로 1위에 올랐다.

이들은 이번 체전에서 첫 정식종목으로 채택된 파라카누 금메달 리스트로 이름을 올리게 됐다.

김광현은 2022년 항저우장애인아시아게임 출전을 목표로 2019년부터 대한장애인체육회에서 추진하는 카누프로그램에 매년 참여, 이같은 성적을 내 국제대회 메달에 청신호를 밝혔다.

전남장애인체육회는 이들이 코로나19로 체계적 훈련조차 어려운 난관을 극복한 성과로 평가하고 있다.

파라카누는 장애를 가진 선수들이 카약(kayak)과 바아(va'a) 두 종류의 보트로 경쟁하는 레이싱 종목이다. 2016년 리우장애인올림픽부터 정식종목으로 채택됐다. 장애인 선수들은 카약(KL1, KL2, KL3), 바아(VL1, VL2, VL3) 등 각 세 종목씩 총 6개의 세부종목에서 200m 거리에서 실력을 겨룬다.

파라카누는 2019년 제39회 전국장애인체전부터 시범경기로 열렸지만 2020도쿄패럴림픽에 정식종목으로 채택되면서 이번 경북체전부터 정식종목으로 채택됐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파라카누에서 우승한 김광현(왼쪽)과 손영숙.

## NBA 브루클린 가드 어빙 백신 맞을 때까지 경기 못 뚫다

미국프로농구(NBA) 브루클린 네츠는 카이리 어빙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할 때까지 팀에 합류할 수 없다고 밝혔다.

브루클린의 선 마크스 단장은 12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어빙이(리그에) 온전히 참가할 수 있을 때까지 팀 경기와 훈련에 함께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뉴욕주는 지난달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자에게만 체육관 입장을 허용한다. 최소 1차 접종을 완료해야 한다.

이에 따라 뉴욕에 연고를 둔 브루클린과 뉴욕 닥스 선수들도 각각 홈구장인 브루클린의 바클레이스 센터와 맨해튼의 매디슨 스퀘어 가든에서 경기를 치르려면 백신 접종이 필수다.

하지만 어빙은 나설 수 있지만, 브루클린을 찾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홈구장에 출입할 수 없는 상태다.

새 시즌 홈 경기와 뉴욕 원정 경기만 따져도 정규리그 82경기 중 43번을 결장해야 하는데, 미국 ESPN에 따르면 이 경우 어빙은 경기당 38만달러(약 4억5000만원)의 손해를 보게 된다.

원정 경기에는 나설 수 있지만, 브루클린 구단은 어빙을 일단 전력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마크스 단장은 "어빙은 개인적인 선택을 했고, 그의 선택을 존중한다"면서도 "현재로서는 이 선택으로 인해 어빙이 팀에서 '풀타임'을 소화하는 데 제약이 있고, 우리는 어떤 구성원도 '파트타임'으로 참여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못을 박았다.

그는 "우리는 한 팀으로 조직력을 다져야 하고, 오랫동안 확립해 온 협력과 희생의 가치를 지켜야 한다. 우승이라는 목표는 변하지 않았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모든 구성원이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1-2022시즌 NBA 정규리그는 20일 막을 올린다. 브루클린은 이달 30개 구단 단장 조사에서 강력한 우승 후보로 뽑혔으나, 어빙이나 구단이 뜻을 굽히지 않는다면 케빈 듀랜트-제임스 하든-어빙의 '삼각편대' 가동은 어려울 전망이다. /연합뉴스

## 내년부터 46인치 이상 드라이버 금지...선수들 반발

### 미국골프협회 등 길이 제한키로

2022년부터 길이 46인치 이상 드라이버는 공식 대회에서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전 세계 골프 규칙을 공동으로 관장하는 미국골프협회(USGA)와 R&A는 프로 대회는 물론 아마추어도 공식 대회에서는 드라이버 길이 46인치를 넘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13일(한국시간) 밝혔다.

현행 드라이버 길이 한도 48인치보다 2인치를 줄인 것이다.

USGA와 R&A가 드라이버 길이 제한이라는 칼을 빼 들 것이라는 관측은 일찌감치 나왔다.

두 단체는 한없이 길어지는 선수들의 드라이버 비거리가 골프의 본질을 훼손한다는 데 뜻을 모으고 장타 억제 쪽으로 정책 방향을 정한 지 오래됐기 때문이다.

두 단체는 드라이버로 350야드를 때려놓고 웨지로 그린을 공략하는 'bomb 앤드 gouge' 방식의 골프에 못마땅하다는 기색을 숨기지 않아 왔다.

이런 장타를 앞세운 골프에 대응하려고 골프 코스 전장을 꾸준히 늘리는 현상은 골프 비용을 높여 골프의 저변을 갉아 먹은 것이라고 두 단체는 생각한다.

USGA가 주관하는 US오픈 대회 코스는 이러

다가 8000 야드를 넘길 것이라는 우려까지 낳는다.

USGA와 R&A의 발표가 나오자 미국프로골프(PGA)투어와 미국여자프로골프(LPGA)투어는 즉각 내년 1월1일부터 대회 때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유럽, 일본, 한국 등 주요 프로 골프 투어 역시 따를 것으로 보인다.

당장 손해를 볼 선수는 극소수다.

PGA투어에서 46인치가 넘는 드라이버를 쓰는 선수는 필 미켈슨, 브라이언 디셈보(이상 미국), 딜런 프리델리(남아공) 등 몇 명 되지 않는다.

LPGA투어에서는 브룩헨슨(캐나다)뿐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프로 선수들은 드라이버 길이 제한에 반발했다.

미켈슨은 드라이버 길이를 늘린 덕을 토포하며 보는 선수다. 그는 지난 5월 PGA챔피언십에 47.5인치 드라이버를 들고나와 최고령 메이저대회 우승이라는 위업을 달성했다.

저스틴 토머스(미국)는 "긴 드라이버를 쓴다고 유리한 건 없다"면서 "차라리 팔뚝에 샤프트를 고정하는 퍼트 방식 등 정말로 규제할 게 많다"고 공언한 규제라고 불만을 드러냈다.

장타 대신 정교한 아이언샷을 내세우는 콜린 모리카와(미국)마저 반대의 목소리를 냈다. 그는 "장타가 전부 아니다. 코스가 짧다고 25언더파로 우승하지 못한다. 코스의 난도는 전장으로 결정되는 건 아니다"라면서 "이런 규제는 아무런 변화를 끌어내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LOTTE CINEMA | 증장로관**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1관	베놈 2: 렛 데이 비 카니지
2관	007 노 타임 투 다이 화이트데이: 부서진 결계
3관	보이스
4관	베놈 2: 렛 데이 비 카니지
5관	베놈 2: 렛 데이 비 카니지
6관	베놈 2: 렛 데이 비 카니지
9관	007 노 타임 투 다이, 십개월의 미래, 용과 주근깨 공주
7관 씨네커를	십개월의 미래, 살: 인연의 시작, 푸른 호수, 극장판 찰는뿔말과 격돌! 부산광역시 청소년 예술제
8관 씨네커를	가적

**광주문화예술회관 문의 062)613-8353**

GAC 11시 음악산책 7 박은식의 피아노의 숲  
일시: 2021. 10. 27.(수) 11:00  
장소: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  
문의: 062-613-8232

GAC 기획공연 포시즌 실내악 시리즈\_현악 4중주  
일시: 2021. 10. 30.(토) ~ 11. 06.(토)  
장소: 광주문화예술회관  
문의: 062-613-8235